

사사기 17. "삼손의 복수" [15 장 1 절-20 절]

1. 들어가기

사사기 15 장은 아내를 빼앗긴 삼손이 크게 분노하여 블레셋 주민들에게 복수를 하게 되면서 블레셋과 삼손 사이에 더 큰 틈이 생기게 되고, 그 틈을 이용해 블레셋을 치시고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게 됩니다. 먼저 아내를 빼앗긴 삼손은 300 마리의 여우 꼬리에 횃불을 달아 추수를 기다리던 블레셋 사람들의 농작물을 모두 태워버렸습니다. 이에 화가 난 블레셋 주민들은 삼손의 장인과 아내를 찾아가 그들을 불살라 죽이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로 인해 삼손을 크게 분노하며 이 사건을 블레셋에 복수할 정당한 기회로 삼고, 블레셋 사람들을 무참히 죽이게 되었습니다. 그로 인해 블레셋과 삼손 사이에는 더 큰 틈이 생기게 되었고, 결국 블레셋 사람들은 군대를 일으켜 유다를 치기 위해 올라오게 되었습니다. 이때 유다 사람들은 블레셋 사람들을 진정시키며 자신들 스스로가 삼손을 결박하여 블레셋에 넘겨주면서 화평을 청하게 되었습니다. 이때 하나님의 신의 능력이 갑자기 삼손에게 임하면서, 삼손은 나귀의 턱뼈로 그곳에 모인 천명의 블레셋 사람들을 죽이며 놀라운 대승을 거두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삼손은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공식적인 사사로 등장하며 20 년동안 이스라엘을 이끌게 되었습니다.

2. 하나님은 분노한 삼손의 마음을 이용해 블레셋을 치셨습니다.

1) 삼손과 블레셋 사이의 틈을 이용하시는 하나님의 섭리

- 불화 (블레셋과 삼손) - 분노 (삼손) - 블레셋을 징벌 (삼손을 통한 하나님)
- 불화 (블레셋과 삼손) - 분노(블레셋+삼손) - 블레셋을 징벌 (삼손을 통한 하나님)

2) 삼손은 아내를 빼앗긴 것을 알고 분노했습니다. (1-3 절)

- 삼손은 진심으로 댁나의 블레셋 여인을 사랑했던 것 같습니다.
 - 자신을 배신한 아내를 용서하며 다시 찾으러 갔음 + B. 장인의 제안을 거절.
 - 삼손의 너그러운 마음과 진실된 마음을 발견할 수 있다고 생각.
- 하나님은 한번 택하신 백성은 끝까지 버리지 않으시고 세상 끝날까지 보호하시며 지키신다는 사실을 기억.

➤ 생각하기 1. 삼손의 장인은 왜 삼손이 돌아올 수 있다는 것을 생각지 못했을까?

- 인생에 중요한 결정일수록 더욱더 신중히 생각하고 판단해야 할 것!
- 성도는 언제나 세상적인 관점이 아닌 하나님의 관점, 믿음의 관점에서 생각하고 기도하며 신중히 결정해야 할 것!

3) 아내를 빼앗긴 것에 분노한 삼손은 이것이 블레셋 사람을 칠 수 있는 정당한 명분을 될 것이라 선포하였습니다. (3 절)

■ 삼손의 복수 (4-5 절)

- 기드온에게 300 명의 용사가 있었다면, 삼손은 300 마리의 여우~
- 300 마리의 여우 꼬리에 기름 묻힌 횃불을 묶어 블레셋 사람들이 추수할 밭과 감람원을 뛰게 하여 모두 불태워 버림.

■ 참고: 학자들은 300 마리의 여우라기보다는 여우와 비슷한 팔레스타인 지역에 무리 지어 돌아다니는 들개나 개과 동물 자칼일 것으로 추측.

➤ **생각하기 2. 삼손의 장인의 성급한 결정 혹 잘못으로 블레셋 사람들 전체가 삼손으로 인해 피해를 보게 되었다는 것!**

■ 곧 한 두 사람의 잘못은 그 개인의 잘못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 전체를 상하게 하고 피해를 줄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만 할 것!.

4) **한해 농사에 큰 피해를 입은 블레셋 사람들은 크게 분노하여, 삼손의 장인과 아내를 찾아가 그 죄를 물어 불살라 죽였습니다. (6 절)**

■ 아이러니~

삼손의 아내는 불사름을 당할 수 있다는 위협을 피하기 위해 삼손에게 수수께끼의 정답을 알아내고자 했지만, 아이러니하게도 결국 수수께끼의 정답을 알아낸 것이 그녀와 그녀의 집이 불사름을 당하게 되는 이유가 되어 버렸다는 사실.

■ 참고: 구약의 화형은 공식적으로 음란 죄를 범한 사람에게 행해지던 가장 끔찍한 형벌.

➤ **생각하기 3. 그런데 왜 블레셋 사람들은 삼손에게 복수할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참고로 삼손의 장인과 아내는 자신들의 동족이고, 자신들을 위해 남편까지 배신하며 도움을 준 사람들!!)

5) **아내와 장인이 화형되었던 소식을 전해들은 삼손은 블레셋 사람들을 무참히 도륙한 후 에담의 바위 틈으로 피했습니다. (7-8 절)**

- 삼손은 아내와 장인을 죽인 것을 정당한 기회로 삼아 다시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갚는 형식으로 블레셋 사람들을 죽임.
- 삼손과 블레셋 사람들과의 관계는 이제는 마치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넌 것이 됨!.

3. **너무나 초라한 이스라엘의 현실. (9-13 절)**

1) **블레셋 사람들은 이 사건으로 인해 군대를 일으켜 유다 민족을 치기 위해 레히로 쳐들어 왔습니다. (9 절)**

- 유다 지파의 반응
 - 당황하며 블레셋 사람들이 갑자기 쳐들어 온 이유를 확인
 - 삼손이 원인이라는 사실을 알고 3000 명의 군사를 모아 삼손을 생포

- 11 절 주목: “블레셋이 우리를 지금 지배하고 있는데, 왜 블레셋을 건드리는가?” 따짐!!

블레셋을 공격하기 위해 군사 3000 명을 모아 출정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원수를 갚아준 자기 동족이자 사사인 삼손을 잡기 위해서 군대를 이끌고 나아가며, 블레셋의 통치를 받는 현실에 안주하며 그저 현상유지나 하며, 구원의 필요성조차 느끼지 못하는 유다 지파의 모습을 통해 그 시대가 얼마나 영적으로 어두운 시대요 힘을 잃은 시대 되었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 오래 전 여호수아와 함께 그렇게 용맹스럽게 가나안을 정복했던 유다 지파의 모습은 어쩌다 사라지게 되었는지 진실로 우리 마음을 안타깝게 만드는 장면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4. 언제나 변함없으신 우리 하나님은 원수의 목전에서 우리에게 상을 베풀어 주시는 분!

1) 하나님은 블레셋 사람들의 목전에서 성령의 능력으로 삼손을 일으키시며 삼손을 통해 역사하셨습니다. (14-15 절)

- 유다 사람들에게 잡혀 온 몸이 묶여 끌려온 삼손에 대한 반응
 - 블레셋 사람들 = 삼손을 보며 승리의 함성을 지르며 죽이려 달려들
 - 하나님 = 하나님의 신을 보내어 능력으로 삼손과 함께하심

- 그러자 삼손은 자신의 몸을 묶었던 줄을 끊고, 나귀의 턱뼈를 집어 들어 그곳에 모인 블레셋 사람들 천 명을 혼자 죽이며, 큰 승리를 거둔. (15 절)
 - 나귀 턱뼈 vs 1000 명의 칼 = 결코 비교가 되지 않는 무기
 - 참고: 사사 삼갈 - 소모는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 600 명을 죽임.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는 놀라운 능력과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성도가 됩시다. 비록 우리를 에워싸고 있는 악의 세력들이 아무리 견고하고 소리질러 위협한다 하더라도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게 이 세상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이 됩시다.

5. 삼손의 교만과 나약함. (16-20 절)

1) 큰 승리를 거둔 삼손은 스스로 도취되어 자신의 힘을 자랑하고, 자신의 이름을 높이며 노래하였습니다. (16-17 절)

16 절, “이르되 나귀의 턱뼈로 한 더미, 두 더미를 쌓았음이어 나귀의 턱뼈로 내가 천 명을 죽였도다”

17 절, “그가 말을 마치고 턱뼈를 자기 손에서 내던지고 그 곳을 라맛 레히라 이름하였더라

- 참고: 사사 드보라 = 전쟁에서 승리한 직후 하나님의 의로우신 일을 찬양했음!

여기서 우리는 삼손의 믿음과 신앙이 아직도 얼마나 부족하고 형편없는가를 보게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손을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을 보면서, 오늘도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며 우리의 삶을 통해 일하실 하나님을 깨닫게 됩니다.

2) 삼손은 자신의 자량이 얼마나 공허한 것인지 스스로의 한계를 통해 금방 깨닫게 되었습니다. (18 절)

- 18 절을 주목!

“삼손이 심히 목이 말라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께서 종의 손을 통하여 이 큰 구원을 베푸셨사오나** 내가 이제 목말라 죽어서 **할례 받지 못한 자들의 손에** 떨어지겠나이다 하니”

- 삼손의 이야기에서 최초로 하나님께 부르짖음!!
- 스스로를 주의 종으로 칭함!
- 자신의 능력으로 승리를 얻은 것이 아니라, **주께서!!!** 자신의 손을 통해 구원을 행한 것을 고백!!
- 블레셋 사람들은 할례 받지 못한 자들!!
 - 이스라엘 사람들의 차이를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고 인정!!
 - 이스라엘 백성들은 할례를 받고 그들과 구별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되어야만 한다는 사실!!

- 삼손은 자신의 한계 속에서 자신의 정체성과 사명을 발견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연약함과 한계를 발견할 때, 하나님을 생각하고 찾게 됩니다. 그러나 지혜로운 성도는 평안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으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찾는 성도들이라 믿습니다.

3) 하나님은 한 샘을 터트리셔서 삼손의 목마름을 해결해 소생시키시며 20 년간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게 하셨습니다.

- **생각하기 4. 오늘 내용을 통해 개인적으로 깨달은 내용이나 믿음의 결단이 있다면?**